문학 개념 이해·적용 04

말하기 방식과 표현의 배열

연결 개념: 문학 개념 요약 시06·시07

1부	말의 뜻과 말하는 방식	E01~E10 · 문항 01~24
2부	표현의 배열과 강조	E11~E20 · 문항 25~44
3부	작품에서 근거 찾기	자료 A~D · 문항 45~56
4부	01~03편과 함께 읽기	자료 E · 문항 57~60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판단 근거 · 모든 선지의 해설

기호 약속

밑줄 살펴볼 부분 ○ 해당함 ✕ 해당하지 않음 △ 이 문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1부 말의 뜻과 말하는 방식

말하기 방식: 어떤 질문으로 확인할까?

뜻의 관계 · E01~E03
반어: 말과 속뜻이 반대인가?
역설: 모순에 깊은 뜻이 있는가?

질문의 목적 · E04~E05
설의: 물음으로 강조하는가?
문답: 물음 뒤에 답이 있는가?

감정과 부름 · E06~E07
영탄: 감탄에 감정이 실렸는가?
돈호: 대상을 직접 부르는가?

말하는 방식 · E08~E09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다른 목소리의 응답이 있는가?

E10 한 표현에 여러 기준이 함께 성립할까?

기법 이름과 함께 실제 표현의 근거와 효과를 읽는다.

Ⅰ. 겉말·속뜻과 질문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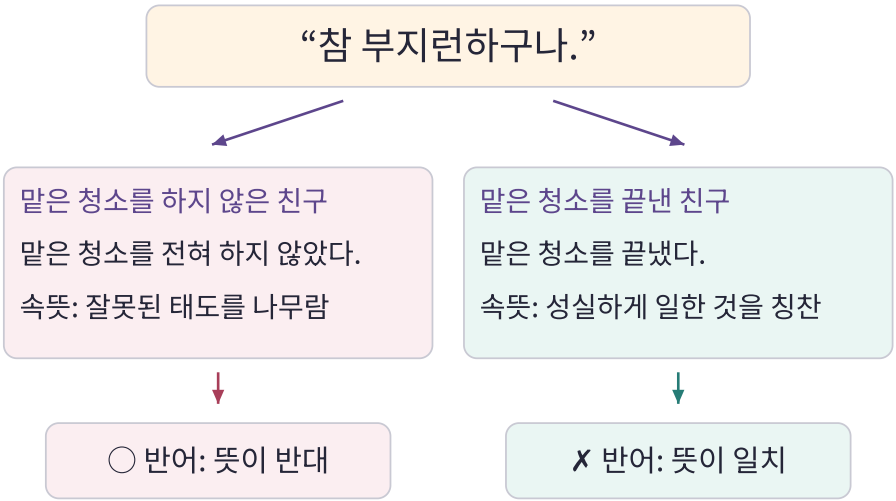
E01 칭찬하는 말인데 왜 반어라고 하나요?

한 줄 답 겉으로 한 말과 속뜻이 반대인지 봅니다. 칭찬하는 말로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면 반어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반어법	겉으로 한 말과 실제 의도를 반대로 드러내는 표현	겉말(겉으로 드러난 말)과 속뜻(실제로 전하려는 뜻)이 반대인가?

판정(반어)	상황과 말	겉말	문맥에서 읽은 속뜻
○	맡은 청소를 전혀 하지 않은 친구에게 "참 부지런하구나."라고 한다.	부지런하다고 칭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태도를 나무람
×	맡은 청소를 끝낸 친구에게 "참 부지런하구나."라고 한다.	부지런하다고 칭찬	성실하게 일한 것을 칭찬

같은 겉말도 상황에 따라 속뜻이 달라진다



겉말의 평가와 문맥에서 확인한 속뜻을 비교한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칭찬처럼 들리면 모두 진심이다	상황과 의도가 겉말과 반대일 수 있다.
반어는 언제나 심한 적대감을 드러낸다	비판·친근한 놀림 등 실제 문맥에 맞게 효과를 설명한다.

E02 모순되는 말을 쓰면 모두 역설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겉으로 모순되는 표현이 문맥에서 진실이나 깊은 뜻을 드러내야 역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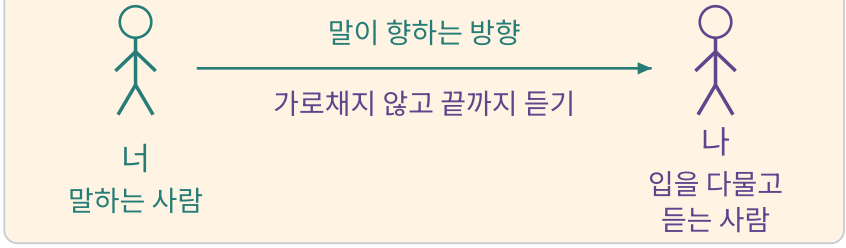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역설법	겉으로는 모순되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실이나 깊은 뜻을 담은 표현	겉으로 보이는 모순을 문맥에서 의미 있게 풀 수 있는가?

예	겉으로 보이는 모순	문맥에서 풀어 쓴 의미
모든 이야기를 내가 차지하던 저녁. 네가 끝까지 말할 수 있게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나의 침묵은 가장 긴 대답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침묵'이 '대답'이라는 점	말을 가로채지 않고 듣는 행동으로 이해와 존중을 전함

침묵이 대답이 되는 까닭

침묵: 말하지 않음 ↔ 대답: 말로 응답함

겉으로 모순



이해와 존중을 행동으로 전한다.

그날 나의 침묵은 가장 긴 대답이었다.

'대답'을 소리 내어 말하기에만 가두면 모순이지만, 이해와 존중을 행동으로 전하기로 읽으면 뜻이 생깁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반대말 두 개가 있으면 역설이다	두 말을 맞세우기만 했는지, 모순되는 하나의 관계로 결합했는지 본다.
뜻이 통하지 않는 사실 오류도 역설이다	모순을 통해 드러내려는 뜻을 문맥에서 풀 수 있어야 한다.

E03 반어와 역설은 어디를 비교하면 구별되나요?

한 줄 답 **비교하는 자리를 봅니다. 반어는 겉말과 속뜻을, 역설은 말 안의 모순과 문맥의 뜻을 비교합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반어법	겉말과 속뜻을 반대로 나타냄	상황에서 읽은 속뜻이 겉말과 반대인가?
역설법	모순되어 보이는 말 속에 깊은 뜻을 담음	말 안의 모순을 문맥의 뜻으로 풀 수 있는가?

판정	새 예	비교할 것
○ 반어	연습에 한 번도 오지 않은 팀원에게 "우리 팀의 기둥이네."라고 말한다.	팀을 지탱한다는 겉말 ↔ 책임을 피한다는 비판
○ 역설	"내가 한 걸음 물러나자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니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	물러남과 가까워짐의 모순 → 양보로 관계 회복
✕ 반어·역설	나는 창을 닫고 너는 창을 연다.	두 행동을 맞세운 대조일 뿐, 겉말·속뜻의 반대나 한 관계 안의 모순은 없음

반어와 역설은 비교하는 자리가 다르다

반어: 말과 상황

"우리 팀의 기둥이네."

↔

연습에 한 번도 오지 않은 팀원

겉말: 팀을 지탱하는 사람

속뜻: 책임을 피한다는 비판

겉말과 속뜻이 반대

역설: 말 안의 모순

내가 한 걸음 물러나자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물러남 ↔ 가까워짐

↓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니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

양보 → 관계 회복

문맥에서 모순을 품

반어는 문맥에서 속뜻을, 역설은 모순이 드러내는 뜻을 읽는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속뜻을 해석해야 하면 모두 반어다	속뜻이 겉말과 반대인지 확인해야 반어라고 할 수 있다.
기법 이름만 맞히면 효과도 정해진다	무엇을 비판하거나 어떤 관계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지 문맥으로 설명한다.

E04 물음표가 붙으면 설의법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답을 몰라서 묻는 말은 설의가 아닙니다. 분명한 생각을 의문 형식으로 강조하는지 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설의법	분명한 생각을 의문 형식으로 강조하는 표현	답을 몰라서 묻는 대신, 분명한 생각을 강조하는가?
단서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말	문맥에서 강조하려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가?
부정 의문문	'않다·없다' 같은 말이 들어간 물음	부정하는 말이 포함된 의문문인가?

단서는 찾는 출발점일 뿐, 확인 질문과 문맥으로 확정합니다.

판정(설의)	문맥과 질문	목적	강조하는 생각
○	모두의 손자국이 남은 벽화를 보며 "누가 우리의 수고를 모르랴."	함께 애쓴 일을 강조	우리의 수고는 누구나 안다.
✕	벽화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이 일은 누가 했니?"라고 묻는다.	제작자를 알아내기	없음 — 답을 몰라서 묻는 말
✕	수리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 문은 어찌 고치나요?"라고 묻는다.	수리 방법 알아내기	없음 — '어찌'가 있어도 방법을 몰라서 묻는 말

의문 형식보다 질문의 목적을 본다

◯ 설의 — 모두의 손자국이 남은 벽화
누가 우리의 수고를 모르랴. → 우리의 수고는 누구나 안다.

✗ 설의 아님 — 제작자를 모르는 사람
이 일은 누가 했니? → 제작자를 알아내려는 질문

✗ 설의 아님 — 수리 방법을 모르는 사람
이 문은 어찌 고치나요? → '어찌'가 있어도 정보 요청

같은 의문 형식도 문맥에 따라 목적이 다르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부정 의문문은 모두 설의다	“오늘 문을 열지 않나요?”처럼 실제로 확인하려는 질문도 있다.
물음표가 없으면 설의가 아니다	문장 부호와 별개로 의문 형식과 강조하려는 생각을 본다.

E05 혼자 묻고 답해도 문답법인가요?

한 줄 답 네. 문답법은 질문과 답의 형식을 보는 것이므로 자문자답도 포함합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문답법	질문과 답의 형식을 활용하는 표현	앞의 질문에 대응하는 답이 이어지는가?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함	묻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이 같은가?

예	말하는 사람	판단
나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 답했다. 끝내 놓지 않은 정직함을.	나 한 사람	자문자답이며 문답법
“무엇을 남길까?” 내가 묻자 친구가 “서로의 안부를.”이라고 답했다.	나와 친구	두 사람이 주고받는 문답

헷갈리는 짝	주목하는 기준	구별할 것
설의	분명한 생각을 물음으로 강조하는가	답을 따로 들을 필요 없이 뜻이 드러남
문답	물음 뒤에 대응하는 답을 직접 제시하는가	한 사람의 자문자답도 포함

질문과 답의 형식, 말하는 사람 수를 구별하기

한 사람의 자문자답

무엇을 남길 것인가.

끝내 놓지 않은 정직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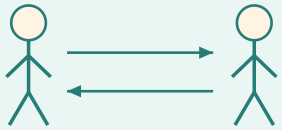
나

1명

두 사람의 질문·응답

무엇을 남길까?

서로의 안부를.



나 친구

2명

둘 다 질문과 답의 형식 → 문답법

두 사람의 말이 오가는지는 말하는 사람을 따로 확인한다.

> 설의 뒤에 답을 덧붙이면 문답 형식도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두 기법을 무조건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물음이 나오면 문답법이다	그 물음에 대응하는 답의 제시도 확인한다.
문답법이면 반드시 청자가 대답한다	화자의 자문자답일 수 있다.

E06 감정이 슬프면 모두 영탄법인가요?

> **한 줄 답** 아닙니다.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등으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지 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영탄법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등을 써서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	감탄의 표현에 강한 감정이 실려 있는가?
단서	감탄사 '아·오', 감탄형 어미 '-구나·-어라', 감정이 실린 '-(이)여' 등	그 표현이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데 쓰였는가?

판정(영탄)	예	판단 근거
✕	나는 네가 떠난 뒤 슬펐다.	슬픔을 서술할 뿐 감탄으로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음
○	아, 네 빈 신발만 남았구나!	감탄사와 감탄형 어미에 상실감이 실림
○	참으로 눈부시구나, 다시 열린 이 아침.	느낌표가 없어도 감탄형 어미와 찬탄의 내용이 드러남

> 고전 시가에서는 '어와·어즈버' 같은 감탄 표현도 살핍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느낌표만 있으면 영탄법이다	명령의 표시일 수도 있으므로 실제 표현과 감정이 드러나는 방식을 확인한다.
영탄은 기쁜 감정에만 쓴다	슬픔·안타까움·놀라움 등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다.

E07 대상을 부르면 돈호와 영탄이 함께 나타날 수 있나요?

> **한 줄 답** **네. 돈호는 대상을 부르는 방식, 영탄은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보므로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돈호법	대상을 직접 불러 주의를 끄는 표현	대상을 직접 부르고 있는가?
단서	부르는 말 '-아/-야/-(이)여' 등	이름을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부르는가?

판정	예	확인되는 것
○ 돈호·영탄	오, 다시 만난 바다여, 이 벅찬 푸름이여!	바다를 직접 부름 + 벅찬 감정을 강하게 드러냄
✕ 돈호·영탄	바다는 여전히 푸르다.	바다를 서술할 뿐 직접 부르거나 감탄하지 않음
○ 돈호	바다야, 내 편지를 받아 다오.	바다를 청자로 설정해 부르고 요청함. 실제 응답은 없음

부르는 방식과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

오, 다시 만난 바다여,
이 벅찬 푸름이여!

돈호: 대상을 부름
바다여
→ 바다를 직접 부름

영탄: 강한 감정
오, … 이 벅찬 푸름이여!
→ 벅찬 마음을 드러냄

두 기준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부름이 있다고 대상의 실제 응답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대상의 이름만 나오면 돈호다	‘꽃이 핀다’는 서술, ‘꽃아’는 부름이다.
대상을 부르면 그 대상이 실제로 듣고 답한다	곁에 없는 사람이나 자연물에도 말을 건넬 수 있다.

II.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E08 ‘너’가 나오면 언제나 청자가 설정되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너’를 말하기만 한 것과 ‘너’에게 말을 건넨 것은 다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독백적 표현	다른 상대와 말을 주고받지 않고 혼자 생각·감정을 말함	다른 상대를 향하지 않고 혼잣말을 하는가?
말을 건네는 방식	상대를 설정하여 부르거나 질문·명령·청유 등을 함	누군가를 향해 직접 말을 하고 있는가?

판정(말을 건네기)	예	판단 근거
✕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중얼거렸다. “오늘 일을 내 마음부터 돌아보자.”	자신의 마음을 향한 독백
△	너의 사진을 상자에 넣었다.	‘너’를 말하지만 직접 말을 건넨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멀리 떠난 친구야, 그곳에서도 건강하렴.	곁에 없는 친구에게 직접 말을 건넴

> 혼자 있다고 해서 꼭 독백인 것은 아닙니다. 곁에 아무도 없어도 떠난 이를 청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실제로 혼자 있으니 청자도 없다	작품 속에 누구를 향해 말하는지 확인한다.
사진이나 이름이 나오면 그 대상에게 말을 건넨다	대상을 말하는 것과 직접 말을 건네는 것을 구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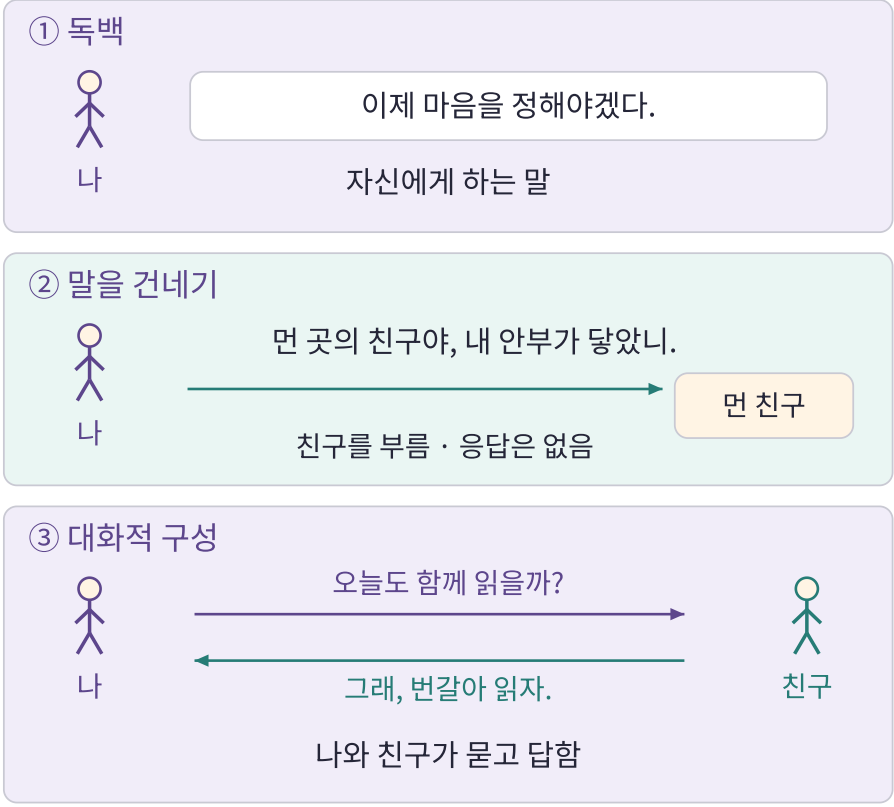
E09 말을 건네는 방식과 대화적 구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 **응답을 주고받는지 봅니다. 말을 건넬 상대만 설정한 경우와 두 목소리가 서로 답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대화적 구성	둘 이상의 목소리가 말을 주고받는 형식	한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응답이 이어지는가?

판정(대화적 구성)	예	말을 건네는 상대	응답의 제시
✕	혼자 중얼거린다. “이제 마음을 정해야겠다.”	별도의 상대가 드러나지 않음	없음
✕	“먼 곳의 친구야, 내 안부가 닿았니.” 편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먼 곳의 친구	없음
○	“오늘도 함께 읽을까?” 내가 묻자 친구가 “그래, 번갈아 읽자.”라고 답했다.	서로를 향함	두 목소리가 주고받음

누구에게 말하는가, 응답이 있는가?



혼자 있어도 곁에 없는 이를 청자로 설정할 수 있다.

‘대화체·대화적 어조’는 문제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까지 넓게 부르기도 합니다. 용어 하나로 실제 응답을 단정하지 말고, 발문이 요구하는 관계와 제시된 말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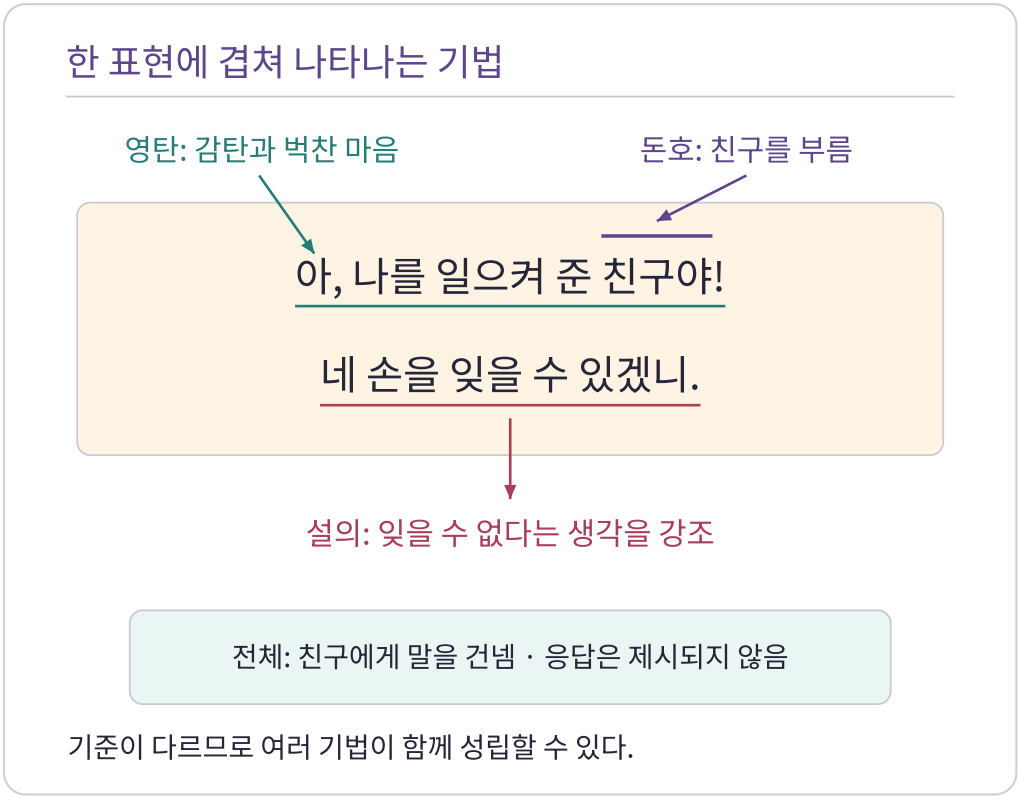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물음 뒤에 바람 소리가 나오면 두 목소리의 대화다	소리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대답이 아니다. 두 목소리가 말을 주고받는 근거를 확인한다.
자문자답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맡아 묻고 답할 수 있다.

E10 한 표현에 기법이 여러 개면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 각각 충족되면 여러 기법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돈호·영탄·설의	각각 부름·감정의 고조·물음으로 강조하기에 주목	각 기법을 뒷받침하는 표현이 있는가?
말을 건네는 방식	누군가를 향해 말하는 방식	말을 향하게 하는 상대가 설정되어 있는가?

예	판단 기준	표현의 근거와 뜻
아, 나를 일으켜 준 친구야! 네 손을 잊을 수 있겠니.	돈호	'친구야'로 친구를 직접 부름
	영탄	'아, … 친구야!'에 고마움과 벅찬 마음을 담음
	설의	'잊을 수 있겠니'로 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강조
	말을 건네는 방식	친구에게 말을 향함. 친구의 응답은 제시되지 않음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설의로 분류했으니 돈호는 될 수 없다	다른 부분·다른 기준에 따라 함께 성립할 수 있다.
감정을 강조하므로 어떤 정서인지 밝힐 필요가 없다	무엇에 대한 어떤 마음인지를 문맥과 연결한다.

반어·역설 · 01~07

01 **밑줄 친 말의 실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둠 발표 자료를 제때 보내겠다고 한 친구는 연락도 없이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그 때문에 모두가 발표를 놓쳤다. 나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약속 하나는 정말 잘 지키는구나."

① 다음 발표의 시각을 묻는다.
② 친구가 약속을 지켰다고 사실을 확인한다.
③ 발표를 잘 마친 성과를 칭찬한다.
④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준 행동을 나무란다.

답 ( )

02 **(가)와 (나)의 같은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수리를 맡긴 사람이 틈 없이 고정된 의자를 살펴보며 "튼튼하게도 고쳤네."라고 진심으로 칭찬했다.
(나) 수리를 맡긴 의자가 앉자마자 주저앉았다. 맡긴 사람은 엉터리 수리를 나무라며 "튼튼하게도 고쳤네."라고 말했다.

① (가)는 칭찬의 말이므로 반어이다.
② 두 말 모두 수리 결과를 칭찬한다.
③ 같은 문장이므로 말하는 의도도 같다.
④ (나)는 겉말과 실제 평가가 반대인 반어이다.

답 ( )

03 **반어의 근거가 가장 분명한 것은?**

① 반도 안 찬 봉지를 받고 양이 적다며 투덜거렸다. "참 넉넉히도 담아 줬네."
② 두 색을 비교하며 말했다. "이쪽은 밝고 저쪽은 어둡네."
③ 길을 몰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④ 반가운 사람을 보고 말했다. "다시 만나서 기뻐."

답 ( )

04 **(가)와 (나)의 밑줄 친 표현을 '반어·역설'에 각각 연결하시오.**

(가) 정리하기로 한 서가를 더 어지른 사람에게 "정리 솜씨가 훌륭하네."라며 나무랐다.
(나)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을 버렸다. 지는 순간, 나는 나를 이겼다.

답 (가) (　　) (나) (　　)

05 **밑줄 친 역설적 표현을 문맥에 맞게 풀어 쓴 것은?**

내 것만 지키느라 문을 닫고 살았다.
남은 빵을 이웃과 나눈 뒤
나는 덜 가졌으나 더 부유해졌다.
처음으로 함께 웃을 사람이 생겼다.

① 이웃과 관계를 맺은 것을 실제로 후회한다.
② 빵을 나눠 준 대가로 더 많은 돈을 받았다.
③ 물질은 줄었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얻은 마음의 풍요는 커졌다.
④ 가진 것이 줄어든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한다.

답 (　　)

06 **밑줄 친 표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빈방은 차갑고, 사람들이 모인 방은 따뜻하다.

① 빈방을 차갑다고 한 뒤 그 말을 취소하여, 두 방이 모두 따뜻하다는 뜻으로 끝맺는다.
② 같은 방을 같은 순간 차갑고 따뜻하다고 하여, 한 상태 안에 모순된 두 성질을 결합한다.
③ 서로 다른 두 공간의 상태를 맞세우며, 반대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설이라 할 수 없다.
④ 차갑다는 말에 따뜻하다는 속뜻을 담아, 빈방의 실제 상태를 반대로 드러내고 있다.

답 (　　)

07 **역설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겉말과 속뜻이 반대인지 보는 반어와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② 겉으로 함께 성립하기 어려운 말이 어떤 의미를 이루는지 살핀다.
③ 반대말이 있다는 사실과 역설이 성립한다는 판단을 구별한다.
④ 표현의 오류로 생긴 모순도 모두 깊은 뜻을 지닌 역설로 인정한다.

답 (　　)

설의 · 08~11

08 **(가)와 (나)의 질문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가) 처음 온 방문객이 개관 시각을 몰라 묻는다. “전시실은 몇 시에 열리나요?”
(나) 어려운 때마다 도와준 이를 떠올리며 말한다. “그 고마움을 어찌 잊겠는가?”

① 두 문장 모두 물음표가 있으므로 설의이다.
② (나)는 응답이 없으므로 아무 생각도 전달하지 못한다.
③ (가)는 정보를 얻으려는 질문, (나)는 잊지 않겠다는 생각을 강조하는 설의이다.
④ (가)는 감정을 강조하고 (나)는 기억 방법을 묻는다.

답 ( )

09 **설의적 표현에 담긴 생각을 가장 적절하게 풀어 쓴 것은?**

친구가 맡긴 비밀을 떠올린다.
소중한 그 믿음을 함부로 깨뜨릴 수 있을까.

① 친구의 믿음을 소중히 여겨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친구의 믿음을 이미 잃었으니 회복할 필요가 없다.
③ 비밀을 다른 이에게 알려 주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④ 믿음을 깨뜨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묻는다.

답 ( )

10 **다음 표현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굶주린 새에게 마지막 곡식을 내어 주는
네 마음을 가난하다 할 수 있겠니.

① 마침표로 끝나므로 설의가 될 수 없다.
② 상대의 실제 재산 액수를 조사하려는 질문이다.
③ 물음표가 없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생각을 의문 형식으로 강조한다.
④ 새가 말로 답했으므로 대화적 구성이다.

답 ( )

11 **다음 질문을 설의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처음 이용하는 체육관에서 직원에게 “오늘은 문을 열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안내문이 없어 휴관 여부를 실제로 알지 못했다.

① 상대방이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③ 부정하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④ 모르는 휴관 여부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답 ( )

문답 · 12~14

12 **다음에 나타난 표현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무엇부터 고칠까.
그리고 혼자 답했다. 남의 말을 끊는 내 버릇부터.

① 한 사람이 묻고 답하는 문답법이 나타난다.
② 칭찬하는 말로 실제 의도를 반대로 나타낸다.
③ 답이 없으므로 문답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친구가 질문하고 화자가 대답하는 대화이다.

답 ( )

13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가) “왜 여기 남았니?” 내가 묻자 친구가 “다친 새를 돌보려고.”라고 답했다.
(나) 혼자 일기를 쓰며 묻고 답한다. “왜 여기 남았나? 내 마음이 아직 떠나지 못해서.”

① 둘 다 묻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② (가)는 말을 건네는 상대가 제시되지 않는다.
③ (나)만 질문과 답을 제시한다.
④ 둘 다 문답법을 쓰지만, 두 인물이 말을 주고받는 장면은 (가)에 나타난다.

답 ( )

14 다음 표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먼 별아, 너는 어느 길로 돌아가니.
> 나는 밤새 창가를 지켰다.
> 별은 말없이 빛났다.

① 별을 향해 물음을 건넨다.
② 별을 직접 부른다.
③ 화자가 창가를 지킨 행동을 제시한다.
④ 질문에 대한 별의 대답이 말로 제시된다.

답 ( )

영탄·돈호 · 15~18

15 영탄적 표현의 근거가 가장 분명한 것은?

① 편지는 책의 셋째 쪽 사이에 있었다.
② 창문의 높이는 내 어깨쯤이었다.
③ 오, 눈 속에서도 살아 있었구나, 이 작은 싹이여!
④ 그날 화자는 슬픈 일을 겪었다.

답 ( )

16 영탄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장 끝에 느낌표가 있으면 내용과 관계없이 영탄으로 확정한다.
② 슬픔이나 안타까움도 강한 감탄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③ 느낌표가 없어도 감탄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④ 감탄형 어미와 문맥에 실린 감정을 함께 본다.

답 ( )

17 돈호법이 쓰인 것은?

① 작은 풀 곁에 돌 하나가 놓였다.
② 나는 작은 풀을 오래 바라보았다.
③ 작은 풀은 담 아래에서 자랐다.
④ 작은 풀아, 오늘도 너를 보러 왔다.

답 ( )

18 **밑줄 친 표현에서 함께 확인되는 것은?**

> 아, 마침내 다시 열린 하늘이여!
> 긴 비가 그친 뒤 운동장에 햇빛이 쏟아진다.

① 겉말의 칭찬으로 비난하는 반어와 실제 질문
② 말의 순서만으로 현재와 과거를 뒤집는 역순행
③ 하늘을 직접 부르는 돈호와 벅찬 감정을 드러내는 영탄
④ 하늘이 대답하는 대화와 감정 없는 보고

답 ( )

누가 누구에게 · 19~23

19 **다음 말하는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빈 교실에 홀로 남아
> 전학 간 친구에게 부칠 편지를 읽는다.
> 친구야, 새 교실에서도 네가 웃었으면 좋겠다.

① 편지를 읽는 존재는 반드시 실제 작가이다.
② 실제로 곁에 없는 친구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넨다.
③ 혼자 있으므로 말을 향하는 상대도 전혀 없다.
④ 친구가 웃음으로 답하는 장면이 제시된다.

답 ( )

20 **대상의 언급과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을 구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가) 나는 친구의 장갑을 서랍에 넣었다.
> (나) 친구야, 잃어버린 장갑을 여기 두었으니 찾아가렴.

① 두 문장 모두 질문이 없으므로 청자를 설정할 수 없다.
② (나)는 친구를 부르고 요청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이 분명하다.
③ (나)는 상대의 대답이 없으므로 말을 건넨 것이 아니다.
④ (가)에 '친구'가 있으므로 반드시 친구와 응답을 주고받는다.

답 ( )

21 **두 목소리가 말을 주고받는 대화적 구성의 근거가 가장 분명한 것은?**

① 나는 속으로 물었다. 어느 쪽으로 갈까. 곧 스스로 답했다. 강 쪽으로 가자.
② 동생아, 오늘도 강가에 갔니. 답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③ "어느 쪽으로 갈까?" 내가 묻자 동생이 "강이 보이는 쪽으로 가자."라고 답했다.
④ 나는 강 쪽을 보고 동생은 산 쪽을 보았다.

답 ( )

22 **(가)와 (나)에서 묻고 답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은 각각 몇 명인가?**

(가) 혼자 걷던 나는 속으로 묻고 스스로 답했다. "무엇이 급할까? 아무것도 급하지 않다."
(나) 내가 "우산이 있니?" 하고 묻자 형이 "하나 있어. 같이 쓰자."라고 답했다.

답 (가) ( )명 (나) ( )명

23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채
나는 속으로 내게 묻는다.
무엇이 두려운가.
시작도 하지 않고 실패를 미리 셈하는 내 마음이다.

① 두 인물이 질문과 응답을 번갈아 말한다.
② 질문에 대응하는 답이 마지막 행에 제시된다.
③ 질문과 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
④ 혼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독백적 표현이 나타난다.

답 ( )

함께 보기 · 24

24 **다음 표현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오, 끝내 우리를 기다려 준 나무여!
그 그늘의 고마움을 오래 간직해야 하지 않겠는가.

① 돈호가 나타나므로 설의는 함께 나타날 수 없다.
② 대상을 부르고 감정을 드러내며, 고마움을 간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물음으로 강조한다.
③ 나무가 고마움에 말로 답했으므로 두 목소리의 대화이다.
④ 나무를 실제로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는 속뜻을 반어로 드러낸다.

답 ( )

2부 표현의 배열과 강조

표현의 배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짝과 차이 · E11~E12
대구: 구조가 나란히 짝인가?
대조: 뜻의 차이를 맞세우나?
통사 구조: 틀이 반복되나?

나열과 연결 · E13~E14
열거: 관련 항목을 나열했나?
반복: 같은 말이 되풀이되나?
연쇄: 끝말을 다음 처음에 잇나?

강도·범위 · E15
점층: 점점 강해지거나 커지나?
점강: 점점 약해지거나 작아지나?

어순과 정도 · E16~E17
도치: 일반적인 어순과 다른가?
과장: 실제보다 크거나 작나?

시적 허용 · E18
어법과 다른 형태인가?
이 시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가?

행간 걸침 · E19
한 행에서 끝나지 않은 말이
다음 행으로 이어지는가?

E20 표현의 근거와 효과가 문맥에 맞는가?

하나의 기법에 하나의 정서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III. 짝·반복·변화의 관계

E11 대구법과 대조법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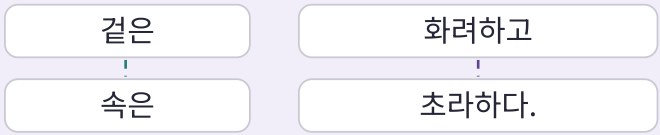
한 줄 답 네. 대구는 문장 구조의 짝, 대조는 의미의 차이를 보므로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대구법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짝짓는 표현	비슷한 문장 짜임이 나란히 짝을 이루는가?
대조법	대상이나 내용을 맞세워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	두 대상이나 내용의 차이를 맞세워 드러내는가?

예	문장 구조	의미 관계
겉은 화려하고 속은 초라하다.	주어 + 서술어가 나란히 대응 → 대구 ○	겉의 화려함과 속의 초라함 → 대조 ○
개울은 들을 적시고, 빗방울은 잎을 적신다.	주어 + 목적어 + 서술어가 대응 → 대구 ○	두 행동의 반대 성격을 맞세우지 않음 → 대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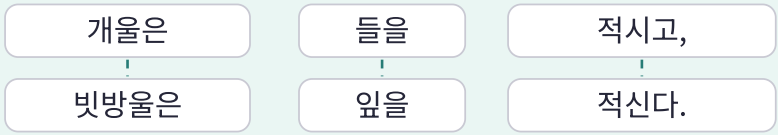
비슷한 구조라고 뜻까지 반대인 것은 아니다

겉은 화려하고 속은 초라하다.



대구 ◯ · 대조 ◯

개울은 들을 적시고, 빗방울은 잎을 적신다.



대구 ◯ · 대조 ✗

짝 표시: 문장 구조의 대응 · 의미의 대립은 따로 판단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대구가 있으면 대조도 있다	비슷한 구조라고 해서 반드시 뜻이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조가 있으면 대구도 있다	뜻의 차이를 드러내더라도 문장 구조가 나란히 짝을 이루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E12 떨어진 연에서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어도 대구인가요?

한 줄 답 보통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대구는 비슷한 구조가 나란히 놓여 짝을 이루는 관계에 주목합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통사 구조	낱말들이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는 짜임	문장 성분의 역할과 배열을 확인할 수 있는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같거나 비슷한 문장 짜임이 되풀이됨	비슷한 문장 짜임이 다시 나타나는가?

위치	예	되풀이되는 틀
첫 연	우리는 마당을 쓴다.	우리는 + 무엇을 + 어찌한다
여러 장면 뒤 마지막 연	우리는 마음을 다듬는다.	같은 문장 짜임이 다시 나타남

헷갈리는 짝	나란히 놓여 짝을 이룰 때	멀리 떨어진 연에서 되풀이될 때
대구	○	✕ (보통 대구라고 하지 않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	○

> 대구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가운데 나란히 짝을 이룬 경우입니다.

낱말이 달라도 문장 틀은 되풀이된다

첫 연

우리는	마당을	쓴다.

여러 장면이 사이에 이어짐

마지막 연

우리는	마음을	다듬는다.

우리는 + 무엇을 + 어찌한다

구조의 반복은 떨어진 부분에도 나타날 수 있다.
대구는 구조들이 나란히 짝을 이루는 관계에 주목한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구조가 반복되려면 모든 낱말이 같아야 한다	문장 성분의 역할과 배열을 비교한다.
대구와 통사 구조 반복은 서로 무관하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주목하는 관계가 다르다.

E13 여러 항목을 나열하면 모두 점층법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항목을 나열하면 열거이며, 강도·범위·규모 등이 점차 커지는 순서가 있어야 점층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열거법	관련되거나 같은 자격을 가진 여러 항목을 나열하는 표현	관련된 여러 항목을 늘어놓았는가?
점층법	뜻의 강도·범위·규모 등을 점차 높이거나 크게 하는 표현	일정한 기준에서 점점 커지는 순서가 있는가?

판정	예	판단 근거
○ 열거 / ✕ 점층	서랍에 실과 가위와 단추를 넣었다.	바느질 도구를 나열하지만 강도·크기의 순서는 없음
○ 열거·점층	내 걱정은 한 집을 넘어 한 마을, 한 도시로 번졌다.	한 집 → 한 마을 → 한 도시로 범위가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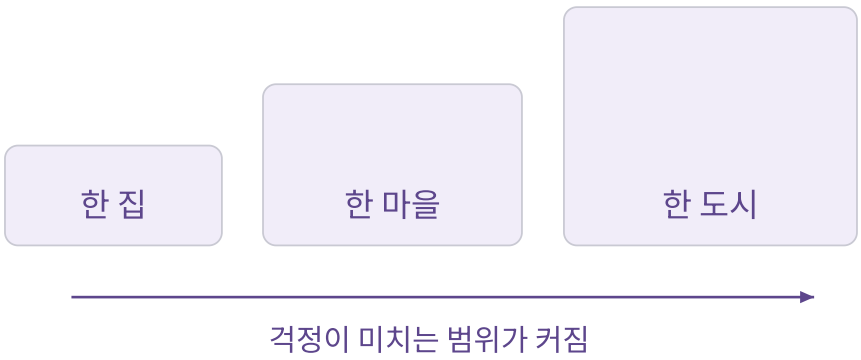
나열만 있는가, 점차 커지는가?

관련 항목의 나열: 열거

실 | 가위 | 단추

크기·강도의 순서는 제시되지 않음

범위를 키우는 나열: 열거 + 점층



항목의 수보다 항목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쉼표가 세 개 있으면 점층이다	문장 부호가 아니라 항목 사이의 의미 관계를 본다.
열거와 점층은 함께 나타날 수 없다	항목을 나열하면서 규모를 점차 키울 수도 있다.

E14 반복법과 연쇄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 줄 답 반복되는 말의 위치를 봅니다. 연쇄는 앞 구절의 끝말을 다음 구절의 처음에서 이어받는 반복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반복법	같거나 비슷한 말·구조를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표현	같은 말이나 비슷한 구조가 다시 나타나는가?
연쇄법	앞 구절 끝부분을 다음 구절 처음에 이어 붙이며 반복하는 표현	앞의 끝말을 다음의 첫머리에서 이어받는가?
단서	앞 구절의 끝말과 다음 구절의 첫말이 이어짐	조사가 달라도 같은 중심 말을 이어받는가?

판정(연쇄)	예	반복의 위치와 효과
✕	조용히, 조용히, 잠든 아이 곁을 지난다.	‘조용히’를 반복하여 조심스러운 행동을 강조하지만 끝→처음은 아님
○	빗방울이 부른 개울, 개울이 부른 강, 강이 부른 바다.	앞의 끝말을 다음 처음에서 이어받아 연결을 드러냄
○	기다림이 남긴 것은 약속이다. 약속은 다시 만날 힘이다.	앞 문장 끝의 중심 말 ‘약속’을 다음 문장 첫머리에서 이어받음

연쇄는 앞의 끝말을 다음 처음에 잇는다

반복: 같은 말이 다시 나타남

조용히, 조용히, 잠든 아이 곁을 지난다.

연쇄: 반복되는 말의 위치를 보기



개울 → 개울이 · 강 → 강이

조사가 달라도 중심 말이 끝에서 다음 처음으로 이어진다.

무엇이 어디에서 되풀이되는가?

반복: 같은 말을 되풀이

조용히, 조용히, 잠든 아이 곁을 지난다.

유사한 통사 구조: 문장 틀을 되풀이

첫 연:	우리는	마당을	쓴다.
마지막 연:	우리는	마음을	다듬는다.

대구: 비슷한 틀을 나란히 짝지음

개울은	들을	적시고,
빗방울은	잎을	적신다.

연쇄: 끝말을 다음 첫머리에서 이어받음

빗방울이 부른 개울,
개울이 부른 강,
강이 부른 바다.

03편 연결 · 수미상관: 처음과 끝에서 되풀이

예: 조용히, 조용히, 잠든 아이 곁을 지난다.
이 문장을 작품의 처음과 끝에 놓아 대응시킨 경우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같은 말이 두 번 나오면 모두 연쇄다	반복되는 말이 끝→처음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연쇄는 시어가 그대로 같은 형태여야 한다	조사가 달라져도 '개울→개울이'처럼 중심 말이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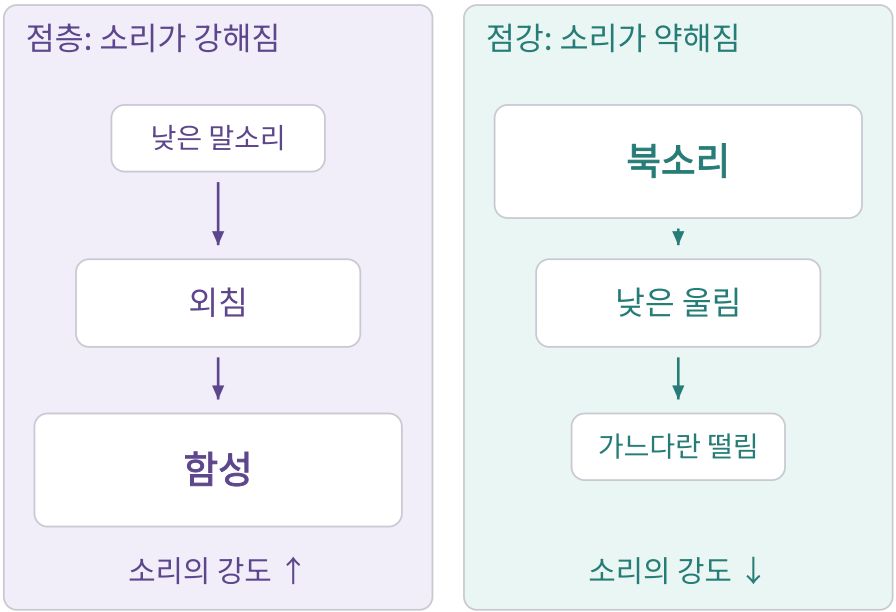
E15 점층법은 감정이 강해질 때만 쓰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소리·행동·규모·범위 등이 단계적으로 커져도 점층입니다. 반대로 약해지거나 작아지면 점강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점층법	뜻의 강도·범위·규모 등을 점차 높이거나 크게 하는 표현	일정한 기준에서 점점 강해지거나 커지는가?
점강법	뜻의 강도·범위·규모 등을 점차 낮추거나 작게 하는 표현	일정한 기준에서 점점 약해지거나 작아지는가?

판정	예	변하는 기준
○ 점층	낮은 말소리가 외침으로, 외침이 함성으로 커졌다.	소리의 강도가 커짐
○ 점강	북소리가 낮은 울림으로, 낮은 울림이 가느다란 떨림으로 잦아들었다.	소리의 강도가 약해짐
○ 점강	넓은 물웅덩이가 작은 웅덩이로, 작은 웅덩이가 한 방울로 줄었다.	물의 양과 크기가 작아짐
✕ 점층·점강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가방을 멨다.	사건의 순서만 제시되어 강도·규모의 변화는 없음

같은 소리도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



소리뿐 아니라 행동·크기·수·범위도 기준이 될 수 있다.

글자 수나 사건 순서만으로 점층·점강을 정하지 않는다.

> 점강이라고 반드시 부정적인 정서는 아니며, 소란이 잦아드는 장면은 평온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03편의 '시상 고조'와 연결할 때도 감정·긴장이 실제로 높아지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문장이 길어지면 의미도 점층된다	글자 수가 아니라 강도·범위 등 의미의 변화를 확인한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점층이다	점점 커진다고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IV. 어순·정도·규범·행의 경계

E16 도치법에서는 무엇이 바뀌나요?

> **한 줄 답** 말의 순서가 바뀝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는 그대로이며, 옮겨 놓은 말에 주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도치법	일반적인 말의 순서를 바꾸는 표현	일반적인 어순과 비교할 때 말의 위치가 바뀌었는가?
단서	서술어 뒤에 놓인 주어·목적어·부사어 등	서술어 뒤에 남은 말을 앞으로 돌려 읽을 수 있는가?

일반적인 어순	도치된 표현	뒤에 놓인 말
나는 네가 남긴 주소를 기억한다.	나는 기억한다, 네가 남긴 주소를.	목적어 '네가 남긴 주소를'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봄은.	주어 '봄은'

말의 자리는 바뀌어도 역할은 그대로

일반적인 어순

나는	네가 남긴 주소를	기억한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도치된 어순

나는	기억한다,	네가 남긴 주소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뒤에 놓인 ‘네가 남긴 주소’에 주목

기억하는 존재는 ‘나’, 기억하는 대상은 ‘주소’로 유지된다.

> 목적어나 주어가 뒤에 놓여도 누가 기억하는지, 무엇이 오지 않았는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어순이 바뀌었으니 행동의 주체도 바뀐다	어순과 문장 성분의 역할을 따로 본다.
쉼표가 있으면 도치다	어떤 말의 위치가 일반적인 어순과 달라졌는지 확인한다.

E17 작게 표현해도 과장법인가요?

> **한 줄 답** **네.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거나 지나치게 작게 줄여 정도와 감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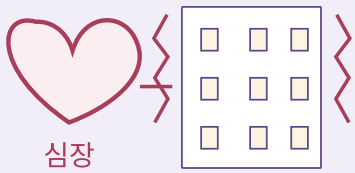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과장법	실제보다 크게 또는 작게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	실제 정도를 넘어서 크게 또는 작게 나타내는가?

판정(과장)	예	실제와 표현의 차이	강조하는 뜻
○	짧은 면접을 앞두고 심장이 건물 전체를 흔드는 듯 뛰었다.	긴장으로 심장이 뜀 → 건물을 흔들 정도로 표현	긴장과 두근거림의 강도
○	꾸중을 듣고 모래알만 해진 목소리로 답했다.	기가 죽어 작게 말함 → 목소리가 모래알 크기인 듯 표현	아주 작게 대답하는 위축된 상태
△	거인이 사는 이야기에서 거인이 산을 옮기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세계의 사건 설정만 제시됨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장이라 확정할 수 없음

헷갈리는 짝	주목하는 기준	판단할 것
과장	실제보다 정도를 크게 또는 작게 나타냄	무엇의 정도를 얼마나 넘어서 표현했는가
역설	겉으로 모순되는 표현에 뜻을 담음	어떤 모순이 문맥에서 깊은 뜻을 드러내는가

실제와 표현 사이의 크기 차이를 본다

크게 부풀림



실제: 긴장으로 심장이 뜀

표현: 건물 전체를 흔들 듯 뜀

짧은 면접을 앞두고 심장이 건물 전체를 흔드는 듯 뛰었다.

긴장·두근거림을 강조

작게 줄임



실제: 기가 죽어 작게 말함

표현: 목소리가 모래알만 함

꾸중을 듣고 모래알만 해진 목소리로 답했다.

위축된 상태를 강조

과장은 정도를 크게도, 작게도 나타내어 강조한다.

> ‘모래알만 한 목소리’처럼 비유와 과장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실제로 불가능한 말이면 반드시 역설이다	과장된 정도인지, 모순을 통해 뜻을 드러내는지 구별한다.
과장은 큰 것만 더 크게 말한다	작음을 지나치게 줄여 표현할 수도 있다.

E18 시에 나온 비표준형은 모두 시적 허용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규범에서 벗어난 형태가 시의 운율·어감·정서를 살리는 효과와 이어질 때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시적 허용	시적 효과를 위해 일반적인 언어 규범에서 벗어난 표현을 허용하는 것	어법과 다른 형태가 이 시의 운율·어감·정서를 살리는가?
확인 ① 형태	어법에 맞는 형태와 시에 쓰인 형태를 비교	어법에 맞는 형태와 다르게 썼는가?
확인 ② 효과	바꾼 형태가 작품에서 내는 효과를 읽음	음절·호흡·느낌 등의 효과를 문맥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새 시	형태 비교	작품 안에서 읽는 효과
느린 밤이 깊어 간다. 너의 이름 불러 본다. 다시 네가 그리웁다.	그립다(3음절) → 그리웁다(4음절)	마지막 말의 호흡을 늘여 그리운 느낌을 남김. 세 행의 음절 수도 각각 8개로 맞아 반복되는 리듬을 이룸
머언 들판 끝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흔들린다.	먼(1음절) → 머언(2음절)	소리를 늘여 읽게 하여 멀리 떨어진 거리감을 살림

어법과 다른 형태가 이 시에서 내는 효과

어법에 맞는 형태: 그립다 → 시에 쓴 형태: 그리웁다

3음절 → 4음절

느린 밤이 깊어 간다. — 각 행 8음절
너의 이름 불러 본다. — 마지막 말의 호흡이 길어짐
다시 네가 그리웁다. — 그리운 느낌을 남김

↓

형태의 변화와 시적 효과가 이어짐 → 시적 허용

시인의 별도 설명 없이도 작품의 효과로 판단할 수 있다.
일상 글의 오타는 시적 허용이 아니다.

> 시인이 따로 의도를 설명하지 않아도, 시의 표현과 문맥에서 효과를 읽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시에서는 어떤 오자도 모두 허용된다	일상 글의 오타는 시적 허용이 아니다. 작품 안에서 시적 효과와 이어지는지 본다.
일상 표준형도 '그리웁다'로 바뀐다	시적 표현의 허용이 일반적인 언어 규범의 변경을 뜻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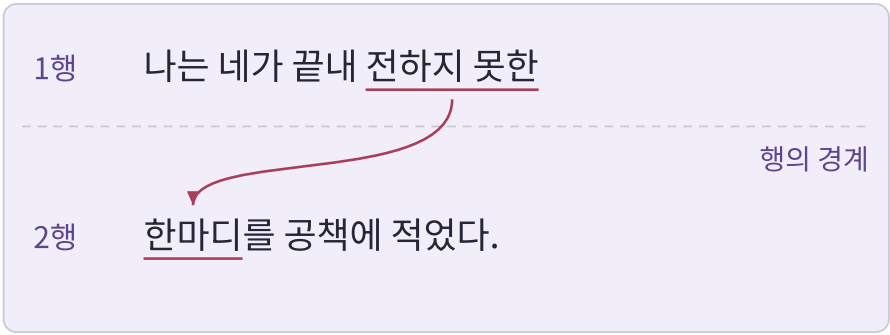
E19 줄만 바꾸면 모두 행간 걸침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한 행에서 끝나지 않은 문장 짜임이나 의미가 다음 행으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행간 걸침(시행 걸침)	한 행에서 끝나지 않은 구문·의미를 다음 행에 이어 놓는 방식	첫 행의 미완성된 짜임이나 뜻이 다음 행으로 이어지는가?
단서	꾸미는 말과 꾸밈 받는 말처럼 붙여 읽어야 할 말 사이에서 행이 끊김	앞 행에서 끝나지 않은 말이 다음 행과 연결되는가?

판정(행간 걸침)	예	행 사이의 관계
○	나는 네가 끝내 전하지 못한 한마디를 공책에 적었다.	'전하지 못한'이 다음 행의 '한마디'를 꾸밈
○	나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이어 읽는 서술어 '하지 못했다'가 두 행으로 갈림
✕	저녁이 왔다. 마을에 불이 켜졌다.	각 행의 문장이 끝남. 줄만 바꿨다고 행간 걸침은 아님

한 문장의 구조가 행의 경계를 넘는다



이어지는 구문

‘전하지 못한’이 다음 행의 ‘한마디’를 꾸민다.
첫 행에서 기다린 대상을 다음 행에서 만나게 된다.

자동 줄바꿈과 의도한 행갈이를 구별한다.
줄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행간 걸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첫 예는 ‘전하지 못한’ 뒤에서 호흡을 나누고 다음 행의 ‘한마디’에 주목하게 합니다. 화면·지면 폭 때문에 자동으로 줄바꿈된 것과 시인이 의도한 행갈이는 구별합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문장에 마침표가 없으면 행간 걸침이다	실제 문장 짜임이나 의미가 행 경계를 넘어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행갈이가 늘어나면 문장 수도 반드시 늘어난다	한 문장이 여러 행에 걸칠 수 있다.

E20 ‘강조한다’고만 쓰면 표현 효과를 설명한 건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표현으로 강조하는지까지 연결해야 설명이 구체적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표현 효과	표현 방식이 내용·정서를 드러내는 데 하는 일	실제 표현의 근거와 문맥을 함께 들어 설명했는가?

예	표현의 근거	기법	이 문맥의 효과
나는 기다린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네 발소리를.	목적어가 ‘기다린다’ 뒤에 놓임	도치	뒤에 놓인 ‘네 발소리’에 주목하게 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냄

근거 없는 설명	근거에 맞춘 설명
도치했으므로 기쁨이 고조된다.	어순을 바꾸어 기다리는 대상을 뒤에서 부각한다. 기쁨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반복했으므로 갈등이 해결된다.	반복된 말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읽는다. 해결 여부는 사건과 결말의 근거가 필요하다.

기법을 문맥의 효과까지 연결하기

① 실제 표현

나는 기다린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네 발소리를.

↓

② 확인한 관계

목적어를 서술어 뒤에 둠 → 도치

↓

③ 이 문맥의 효과

뒤에 놓인 ‘네 발소리’에 주목하게 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냄

어순만으로 기쁨의 고조나 상황의 해결까지 단정하지 않는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같은 기법이면 언제나 같은 정서를 나타낸다	어떤 내용이 그 기법으로 표현되었는지 함께 읽는다.
기법이 많을수록 정답 선지다	각 기법과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

대구·대조·문장 틀 · 25~28

25 **다음 표현에서 함께 확인되는 것은?**

나는 닫힌 문을 밀고,
너는 열린 문을 당긴다.

① '나는·너는'으로 문장 구조가 대응하지만, 문과 행동의 뜻에는 서로 다른 점이 없다.
② 문을 움직이는 소리가 점차 커지는 점층과, 문이 화자의 말에 대답하는 구성이 나타난다.
③ 문을 밀고 당기는 행동은 대조되지만, 두 행의 문장 성분이나 배열에는 공통점이 없다.
④ '나는·너는'으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대응하며, 문과 행동의 서로 반대되는 뜻도 드러난다.

답 ( )

26 **대구는 확인되지만 대조의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것은?**

① 겉모습은 빛나는데 속마음은 메말랐다.
② 멀리 있는 불은 환하고 가까이 있는 불은 희미하다.
③ 나는 씨앗을 심고, 너는 모종을 심는다.
④ 한 사람은 떠나고 다른 사람은 남는다.

답 ( )

27 **대조의 핵심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가득 찬 창고 옆에서 한 아이가 빈 그릇을 안고 섰다.

① 창고의 풍족함과 아이의 결핍을 맞세운다.
② 두 주어와 두 서술어가 같은 순서로 반복되어야만 대조가 성립한다.
③ 빈 그릇은 실제로 가득 찼다는 반어이다.
④ 창고와 아이가 서로 말로 응답한다.

답 ( )

28 **밑줄 친 두 문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공통점은?**

[첫 연] 그는 골목의 먼지를 턴다.
[중간 연]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어진다.
[마지막 연] 그는 마음의 두려움을 턴다.

① 연이 떨어져 있으므로 어떤 구조 반복도 성립하지 않는다.
② 중간 연이 생략되어 두 문장이 나란히 짝을 이룬다고 확인할 수 있다.
③ '그는 + 무엇을 + 턴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④ 모든 낱말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반복된다.

답 ( )

열거·점층 · 29~30

29 **다음 나열을 점층법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장터의 천막 아래에는
사과와 무와 달걀이 놓였다.

① 항목이 나열되지만 강도·범위 등이 점차 커지는 기준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쉼표 대신 조사를 썼으므로 항목이 나열되지 않았다.
③ 식물 이름이 포함되면 표현 기법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세 가지 항목이 나오면 열거법도 성립하지 않는다.

답 ( )

30 **다음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한 교실의 외침이 운동장으로,
운동장의 외침이 마을 전체로 번졌다.

①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점강만 나타난다.
② 소리가 퍼지는 공간의 범위가 커지는 점층이 드러난다.
③ 화자의 기쁨이 커졌다고 반드시 확정할 수 있다.
④ 장소가 둘 이상 나오면 범위 변화와 무관하게 점층이다.

답 ( )

반복·연쇄 · 31~33

31 **‘다시’의 반복이 하는 일로 적절한 것은?**

> 다시 바늘에 실을 꿴다.
> 다시 떨어진 단추를 집는다.
> 다시 네 옷깃을 여민다.

① 목소리의 크기가 단계적으로 작아진다.
② 되풀이하는 손길을 부각하며 일련의 행동에 통일된 가락을 만든다.
③ 모든 일이 이미 끝났음을 알려 준다.
④ 행 끝말을 다음 행 첫머리에서 이어받는다.

답 ( )

32 **연쇄법을 판단할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 기다림이 낳은 편지,
> 편지가 낳은 만남,
> 만남이 낳은 웃음.

① ‘낳은’이 각 행의 가운데에서 반복된다.
② 앞 구절 끝의 ‘편지·만남’을 다음 구절 처음에서 이어받는다.
③ 각 행의 음절 수가 동일하게 반복된다.
④ 서로 다른 두 인물이 편지를 주고받는다.

답 ( )

33 **반복은 있으나 연쇄법의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것은?**

① 조심조심, 너의 잠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조심 걷는다.
② 새벽이 빛을, 빛이 꽃을 깨운다.
③ 손이 빚은 흙, 흙이 이룬 그릇.
④ 길이 만난 다리, 다리가 만난 마을.

답 ( )

점층·점강 · 34~36

34 **점강법과 정서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시끄러운 발소리가 낮은 발소리로,
> 낮은 발소리가 옷자락 스치는 소리로 잦아들었다.
> 아이는 비로소 편안히 잠들었다.

① 끝에 새로운 문장이 있으므로 앞의 점강은 취소된다.
② 소리가 점차 약해지는 점강이 편안한 분위기와 연결된다.
③ 점강은 부정적 표현이므로 아이의 절망을 드러낸다.
④ 소리가 약해지므로 장면의 시간도 거꾸로 흐른다.

답 ( )

35 **다음 제시 순서를 점층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 나는 아침에 편지를 쓰고
> 낮에 우체국에 들렀다가
>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① 서로 다른 장소가 나오면 반드시 점강이다.
② 시간과 사건의 순서는 있지만 강도나 규모가 점차 커지는 근거는 없다.
③ 시간이 앞으로 흐르면 시상 전개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마지막 문장이 앞의 모든 사건을 반대로 부정한다.

답 ( )

36 **(가)와 (나)의 변화 기준과 방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가) 그는 천천히 걷다가 걸음을 재촉하고, 마침내 온 힘을 다해 달렸다.
> (나) 벽을 채운 큰 그림자는 작은 그림자로, 작은 그림자는 점 하나로 줄었다.

① (가)와 (나)는 모두 현재의 일을 멈추고 과거 장면으로 돌아간다.
② (가)는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나)는 그림자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③ (가)는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나)는 그림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④ (가)와 (나)는 문장이 길어지는 공통점 때문에 모두 점층이 된다.

답 ( )

도치 · 37~38

37 **밑줄 친 표현을 일반적인 어순으로 바꾸어 이해한 것은?**

다시 피어났다, 돌 틈의 작은 꽃이.

① '돌 틈의 작은 꽃이 다시 피어났다'로 읽으며, 꽃이 아닌 화자가 피어난다는 뜻이다.
② '돌 틈의 작은 꽃이 다시 피어났다'로 읽으며, 피어나는 주체는 여전히 꽃이다.
③ '다시'가 서술어 앞에 있으므로, 꽃이 다시는 피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뀐다.
④ '돌 틈의 작은 꽃이'가 뒤로 갔으므로, 꽃이 먼저 진 뒤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답 ( )

38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 뒤로 옮겨진 말을 찾아, 꾸미는 말과 조사까지 그대로 쓰시오.**

우리는 오래 바라보았다, 텅 빈 의자를.

답 _____

과장 · 39~40

39 **밑줄 친 과장 표현의 효과로 적절한 것은?**

한나절을 운동장에서 달리고 돌아오니
목이 말라 강물 한 줄기도 다 마실 듯했다.

① 목마르지 않은 속뜻을 반대로 말하여 물을 거절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② 실제로 마신 물의 양을 정확하게 재어 강의 길이와 비교한다.
③ 목이 마르면서 마르지 않다는 모순된 말로 깊은 뜻을 담는다.
④ 마실 수 있는 양을 크게 부풀려 목마름이 매우 심함을 드러낸다.

답 ( )

40 **과장법의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평범한 학생이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어. 책상이 무너질 지경이야.”라고 부담을 표현한다.
(나) 거인이 사는 이야기에서 거인이 손으로 산을 옮기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서술된다.

① (가)는 부담을 부풀린 과장이며, (나)는 비현실적인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장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② (가)는 말의 뜻을 그대로 전하지만, (나)는 비현실적인 사건이므로 겉말과 속뜻이 반대인 반어이다.
③ (가)는 일상에서 쓰는 말이어서 과장이 될 수 없으며, (나)는 이야기에 나오므로 반드시 역설이 된다.
④ (가)와 (나)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표현의 역할을 더 보지 않아도 둘 다 과장이다.

답 ( )

시적 허용 · 41~42

41 **밑줄 친 형태가 이 시에서 내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 져도 쉽게 떠나지 마라.
빈 뜰의 꽃잎을 한 번 더 비추며
저녁빛아, 아름다웁게 머물러라.

① ‘아름답게’보다 음절을 줄여 빛이 급히 사라지는 느낌을 만든다.
② ‘아름답게’보다 한 음절 늘여 빛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느낌을 살린다.
③ ‘아름답게’의 형태를 바꾸어 빛을 전혀 아름답지 않게 여기는 뜻을 전한다.
④ 시에서 사용했으므로 ‘아름다웁게’를 일상 글의 표준형으로 바꾼다.

답 ( )

42 **다음 중 시적 허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일기에 쓰려던 ‘다녀왔다’를 실수로 ‘다녀왓다’라고 잘못 적었다.
② 시에서 ‘붉은 꽃이 피었다’라고 표준적인 형태를 그대로 사용했다.
③ 시에서 ‘나는 기다린다, 첫눈을’처럼 목적어를 서술어 뒤에 놓았다.
④ 시에서 ‘하아얀 눈길이 끝없이 이어진다’라고 소리를 늘여 눈길의 긴 느낌을 살렸다.

답 ( )

행간 걸침·효과 · 43~44

43 **행간 걸침을 판단할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나는 비에 젖어 아직 펼치지 못한
편지 한 장을 주머니에 넣었다.

① 둘째 행에 마침표가 있으므로 첫 행도 이미 완결되어 있다.
② 시를 두 행으로 나누기만 했으므로 어떤 내용이어도 행간 걸침이다.
③ 첫 행의 '펼치지 못한'이 다음 행의 '편지 한 장'을 꾸미며 이어진다.
④ 첫 행과 둘째 행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대답한다.

답 ( )

44 **표현과 효과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부르리라, 오래 잊고 지낸
그 이름을.

① 행을 바꾸었으므로 앞의 다짐을 취소한다.
② 도치했으므로 부르던 사람을 이미 만나 기쁨이 절정에 이른다.
③ 이름을 실제로 모른다는 정보를 얻기 위해 묻는다.
④ 목적어를 서술어 뒤로 옮기고 행 경계를 넘어 제시하여 '그 이름'에 주목하게 한다.

답 ( )

3부 작품에서 근거 찾기

자료 A 함께 쓰는 운동장

문항 45~47

1 누구에게나 열린 운동장이라고 적혀 있다.
2 새 운동화를 신은 아이에게는 문을 열고,
3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에게는 문을 닫는다.
4 나는 잠긴 문을 향해 말한다.
5 참으로 너그러운 문이구나.
6 간판의 '누구에게나'가 문 앞에서 멈춘다.

45 **자료 A의 5행에 나타난 표현 방식과 뜻으로 적절한 것은?**

① 문이 점차 커지는 규모의 변화를 강조한다.
② 문이 말로 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③ 모든 아이에게 열린 문을 진심으로 칭찬한다.
④ 겉으로 너그럽다고 말하며 차별적으로 문을 여는 태도를 비판한다.

답 ( )

46 **자료 A의 2~3행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비슷한 문장 구조이므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도 같다.
② 두 아이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한다.
③ 낱말이 일부 다르므로 문장 구조는 대응하지 않는다.
④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지으면서 문을 열고 닫는 행동을 대조한다.

답 ( )

47 **자료 A의 표현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에게나'라고 내건 말과 실제 대우의 차이가 드러난다.
② '너그러운'이라는 칭찬의 말이므로 차별에 대한 화자의 긍정을 보여 준다.
③ 마지막 행은 간판의 말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과 연결된다.
④ 비슷한 짜임의 두 행이 아이들의 서로 다른 대우에 주목하게 한다.

답 ( )

자료 B 늦은 답장

문항 48~50

1 늦게 답장을 보낸 친구야, 네 편지를 오래 읽는다.
2 봉투 속에는 네가 병원에서 찍은 창밖 사진 한 장.
3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진이 가장 많은 말을 한다.
4 내가 보지 못한 네 하루의 막막함을 이제야 읽는다.
5 어찌 나의 기다림만 길었다고 말하겠니.
6 나는 재촉하던 말을 지우고 네 안부를 묻는다.

48 **자료 B에서 설의법이 쓰인 행의 번호를 쓰시오.**

답 ( )행

49 **자료 B의 말하는 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응답이 없으므로 친구는 청자가 될 수 없다.
② 화자와 친구의 말이 매 행 교대로 제시된다.
③ 사진이 '말을 한다'고 했으므로 친구의 실제 답변 문장이 인용된다.
④ 친구에게 말을 건네지만 친구의 대답은 제시되지 않는다.

답 ( )

50 **자료 B의 3~4행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진에 적힌 문장을 화자가 한 글자씩 그대로 읽어, 친구가 보낸 답변을 정확하게 옮기는 장면이다.
② 말없는 사진이 많은 말을 한다는 모순된 표현으로, 화자가 친구의 힘든 사정을 이해하게 된 일을 드러낸다.
③ 사진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속뜻을 많은 말을 한다는 겉말로 뒤집어, 친구를 비판하는 장면이다.
④ 사진이 친구의 하루를 알려 주는데도 화자는 그 사정을 끝까지 무시하며, 늦은 답장만 계속 재촉한다.

답 ( )

자료 C 작은 불빛

문항 51~53

1 한 사람의 손끝에서 불빛이 켜진다.
2 불빛이 깨운 창, 창이 깨운 골목, 골목이 깨운 마을.
3 한 집에서, 한 거리에서, 온 마을에서 서로의 안부가 오간다.
4 저마다의 작은 창이 함께 밤을 밝힌다.

51 **자료 C의 2행에 나타난 연쇄법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① 모든 구절이 같은 대상만을 서술한다.
② 단지 구절마다 '깨운'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③ '창·골목'이 앞 구절의 끝에서 다음 구절의 처음으로 이어진다.
④ 첫 행의 문장이 마지막 행에 그대로 나온다.

답 ( )

52 **자료 C의 3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하는 순서만 보여 준다.
② 안부가 오가는 공간의 범위를 넓혀 가며 공동체의 연결을 부각한다.
③ 실제 소리의 높낮이만을 점점 낮춘다.
④ 항목이 나열되었으므로 범위가 확대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답 ( )

53 **자료 C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불빛의 확산은 마을의 모든 갈등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확정한다.
② 작은 불빛의 움직임을 여러 공간의 연결로 펼친다.
③ 한 집에서 온 마을로 커지는 범위가 함께하는 의미를 부각한다.
④ 구절 끝과 다음 처음의 연결은 대상들이 이어지는 인상을 만든다.

답 ( )

자료 D 문틈에서

문항 54~56

1 나는 들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온
2 너의 목소리를.
3 외침은 말소리로, 말소리는 속삭임으로 잦아들고
4 마지막 대답은 티끌만 해졌다.
5 나는 놓치지 않으려 몸을 더 기울였다.

54 **자료 D의 1~2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서술어 뒤의 '너의 목소리'가 듣는 주체가 되어, 문틈 안에서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을 나타낸다.
② 첫 행은 화자가 묻는 말이고 둘째 행은 상대의 답으로, 두 사람이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는다.
③ 목적어가 서술어 뒤에 놓이고, '새어 나온'이 다음 행의 '너의 목소리'를 꾸민다.
④ 첫 행의 '새어 나온'에서 문장 짜임이 모두 끝나므로, 둘째 행의 '너의 목소리'와 연결되지 않는다.

답 ( )

55 **자료 D의 3~4행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소리가 약해지는 점강과 마지막 대답의 작음을 부각하는 과장이 나타난다.
② 표현이 작아지므로 화자의 청력도 반드시 사라진다.
③ 대답의 실제 길이를 티끌의 길이와 정밀하게 비교한다.
④ 화자의 분노가 점점 강해지는 점층만 나타난다.

답 ( )

56 **자료 D의 마지막 행을 앞부분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장이 있으므로 상대의 말뜻도 거짓이라고 확정한다.
② 점차 작아지는 상대의 목소리까지 들으려는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③ 상대와의 모든 오해가 이미 풀렸음을 보고한다.
④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대화를 거절한다.

답 ( )

4부 01~03편과 함께 읽기

자료 E 이른 부엌

문항 57~60

1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불을 켭니다.
2 어젯밤 당신의 피곤함을 지나친 제 무심함을 이제야 돌아봅니다.
3 달그락, 젖은 숟가락이 작은 그릇에 닿습니다.
4 아, 이 따뜻한 물이 손끝을 감싸는구나!
5 이 아침이 저절로 차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6 닦겠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 둔
7 그릇들을.
8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앞치마를 두릅니다.

57 **자료 E의 화자·청자와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며, 자신의 무심함을 돌아보고 일을 먼저 하려 한다.
② 어머니가 화자로서 자녀에게 꾸중한다.
③ 화자는 자신이 무심했던 일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린다.
④ 어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나온다.

답 ( )

58 **자료 E의 3~4행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3행은 그릇 부딪치는 소리를 흉내 내고, 4행은 감탄으로 따뜻함에 대한 느낌을 드러낸다.
② 4행에는 느낌표만 있고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은 없다.
③ 3행의 '달그락'은 모양만을 흉내 낸 의태어이다.
④ 서로 다른 감각이 나오면 반드시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된다.

답 ( )

자료 E 이른 부엌

다시 보기 · 문항 59~60

1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불을 켭니다.
2 어젯밤 당신의 피곤함을 지나친 제 무심함을 이제야 돌아봅니다.
3 달그락, 젖은 숟가락이 작은 그릇에 닿습니다.
4 아, 이 따뜻한 물이 손끝을 감싸는구나!
5 이 아침이 저절로 차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6 닦겠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 둔
7 그릇들을.
8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앞치마를 두릅니다.

59 **자료 E의 처음과 끝 및 중간 내용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① 중간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므로 처음의 말은 모두 취소된다.
② 처음과 끝이 대응하므로 시간도 반드시 한 주기를 돌아왔다.
③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라는 대응이 반성과 실천을 거치며 먼저 돕겠다는 뜻을 부각한다.
④ 마지막의 다짐은 이전의 행동과 관계없이 갑자기 등장한다.

답 ( )

60 **자료 E의 5~7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5행은 아침이 만들어진 과정을 전혀 몰라 구체적인 조리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이다.
② 6~7행에서는 닦을 대상이 서술어 뒤에 놓여 도치가 나타난다.
③ 6행의 '남겨 둔'은 다음 행의 '그릇들'을 꾸미며 행간 걸침을 이룬다.
④ 5행은 아침에 깃든 어머니의 수고를 인정하는 뜻을 강조한다.

답 ( )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01	④	21	③	41	②
02	④	22	(가) 1명, (나) 2명	42	④
03	①	23	①	43	③
04	(가) 반어, (나) 역설	24	②	44	④
05	③	25	④	45	④
06	③	26	③	46	④
07	④	27	①	47	②
08	③	28	③	48	5행
09	①	29	①	49	④
10	③	30	②	50	②
11	④	31	②	51	③
12	①	32	②	52	②
13	④	33	①	53	①
14	④	34	②	54	③
15	③	35	②	55	①
16	①	36	③	56	②
17	④	37	②	57	①
18	③	38	텅 빈 의자를	58	①
19	②	39	④	59	③
20	②	40	①	60	①

해설 표의 ○는 발문에 맞는 정답 보기를 뜻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에서도 정답으로 골라야 할 보기에 ○를 표시했습니다.

01 정답 ④

①	✕	시각에 대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약속 이행에 대한 평가이다.
②	✕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상황과 반대이다.
③	✕	자료를 보내지 않아 발표를 놓쳤으므로 칭찬할 성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④	○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겉말과 달리, 자료를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묻는 반어이다.**

다시 볼 설명 **E01** 요약집 시06-01

02 정답 ④

①	✕	(가)는 실제 상태와 의도가 칭찬에 맞으므로 겉말과 속뜻이 반대가 아니다.
②	✕	(나)의 실제 의도는 부실한 수리를 나무라는 것이다.
③	✕	말의 의도는 실제 상황과 말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④	○	**의자가 곧바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튼튼하다는 칭찬으로 부실한 수리를 비판한다.**

다시 볼 설명 **E01, E03** 요약집 시06-01

03 정답 ①

①	○	**실제로는 양이 적다는 불만을 넉넉하다는 반대 평가로 표현한다.**
②	✕	두 색의 차이를 서술할 뿐 겉말과 속뜻의 반대는 제시되지 않는다.
③	✕	모르는 정보를 얻으려는 질문이다.
④	✕	반가운 상황과 겉말의 기쁨이 일치한다.

다시 볼 설명 **E01, E03** 요약집 시06-01

04 정답 (가) 반어, (나) 역설

판단 근거 (가)는 훌륭하다는 말로 잘못된 행동을 비판한다. (나)는 지는 일과 이기는 일을 결합하여, 상대에게 양보하고 자신의 고집을 극복했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인정 답안 (가) 반어·(나) 역설을 모두 맞게 대응한 답. 순서를 바꾸면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1, E02, E03** 요약집 시06-01 · 시06-02

05 정답 ③

①	✕	함께 웃을 사람이 생겼다는 내용에서 관계의 긍정적 의미가 드러난다.
②	✕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다.
③	○	**가진 물건의 양과 관계에서 느끼는 풍요를 구별하면 겉으로 모순되는 뜻이 이해된다.**
④	✕	물질의 감소를 인정하면서 마음의 풍요를 말한다.

다시 볼 설명 **E02, E03** 요약집 시06-02

06 정답 ③

①	✕	두 방의 상태를 나란히 제시할 뿐 앞의 차가움을 취소하지 않는다.
②	✕	빈방과 사람들이 모인 방은 서로 다른 공간이다.
③	○	**차가움과 따뜻함을 서로 다른 공간에 각각 서술한 대조이다. 모순된 하나의 상태를 결합하지 않았다.**
④	✕	차가운 방을 반대로 평가하려는 문맥이 없으므로 반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볼 설명 **E02, E03** 요약집 시06-02

함께 볼 개념 2부 E11의 대조와 연결한다.

07 정답 ④

①	✕	반어와 역설은 비교해야 할 관계가 다르다.
②	✕	모순과 그 문맥적 의미를 함께 살피는 올바른 판단이다.
③	✕	반대말은 단순한 대조에도 쓰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④	○	**역설은 문맥에서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단순한 사실 오류나 말실수를 자동으로 역설이라 할 수 없다.**

다시 볼 설명 **E02, E03** 요약집 시06-01 · 시06-02

08 정답 ③

①	✕	문장 부호가 같아도 질문의 목적이 다르다.
②	✕	상대의 답 없이도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③	○	**(가)는 모르는 시각을 묻고, (나)는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분명한 판단을 강조한다.**
④	✕	(가)는 개관 시각을 묻고, (나)는 망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다시 볼 설명 **E04** 요약집 시06-03

09 정답 ①

①	○	**깨뜨릴 수 없다는 생각을 물음으로 강조하여 친구의 믿음을 지키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②	×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말이지 이미 잃었다거나 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③	×	함부로 믿음을 깨뜨릴 수 없다는 뜻이므로 비밀을 퍼뜨리려는 태도와 반대이다.
④	×	방법을 알려 달라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다시 볼 설명 **E04** 요약집 시06-03

10 정답 ③

①	×	의문 형식과 강조의 목적은 물음표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②	×	문맥의 중심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의 가치이다.
③	○	**‘가난하다 할 수 있겠니’라는 의문 형식으로 베푸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강조한다.**
④	×	새의 말이나 응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볼 설명 **E04** 요약집 시06-03

11 정답 ④

①	×	사람을 향한 물음도 생각을 강조하는 설의가 될 수 있다.
②	×	시간 표현은 설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③	×	부정 의문 형식은 설의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④	○	**부정 의문문이지만 문맥에서 실제 정보 요청임이 분명하다.**

다시 볼 설명 **E04** 요약집 시06-03

12 정답 ①

①	○	**화자가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직접 답하는 자문자답이다.**
②	×	겉말과 속뜻의 반대가 아니라 자기 점검의 질문과 답이다.
③	×	내 버릇부터 고치겠다는 답이 제시되어 있다.
④	×	친구의 말은 없고 화자가 두 역할을 한다.

다시 볼 설명 **E05, E08, E09** 요약집 시06-04 · 시06-07 · 시06-09

13 정답 ④

①	✕	(나)는 같은 사람이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이다.
②	✕	나와 친구가 서로에게 말한다.
③	✕	(가)에도 질문과 친구의 답이 모두 있다.
④	○	**(가)는 나와 친구의 질문·응답이고, (나)는 한 사람의 자문자답이다.**

다시 볼 설명 **E05**, **E09** 요약집 시06-04 · 시06-09

14 정답 ④

①	✕	'너는 어느 길로 돌아가니'라는 질문이 별을 향한다.
②	✕	'먼 별아'가 직접적인 부름이다.
③	✕	둘째 행에 화자의 행동이 직접 서술되어 있다.
④	○	**별은 말없이 빛날 뿐 대답하는 말이 제시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5**, **E07**, **E09** 요약집 시06-04 · 시06-06 · 시06-08 · 시06-09

15 정답 ③

①	✕	편지의 위치를 설명할 뿐 강한 감정 표출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	높이를 서술하는 문장이다.
③	○	**감탄사·감탄형 어미·부름에 생명에 대한 놀라움과 벅찬 마음이 강하게 실린다.**
④	✕	슬픈 사실을 서술했지만 강한 감탄의 표현은 뚜렷하지 않다.

다시 볼 설명 **E06** 요약집 시06-05

16 정답 ①

①	○	**느낌표는 명령 등에도 쓰인다. 실제 표현에서 감정의 강한 표출을 확인해야 한다.**
②	✕	영탄이 기쁜 감정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③	✕	문장 부호가 없어도 영탄적 표현은 성립할 수 있다.
④	✕	표현 형식과 감정의 내용을 연결하는 올바른 기준이다.

다시 볼 설명 **E06** 요약집 시06-05

17 정답 ④

①	✕	풀 주변의 상황을 제시할 뿐 부르지 않는다.
②	✕	풀은 바라보는 대상이며 이 문장에서는 직접 부름이 없다.
③	✕	풀을 서술하지만 직접 부르지 않는다.
④	○	**‘작은 풀아’라고 대상을 직접 부른다.**

다시 볼 설명 **E07** 요약집 시06-06

18 정답 ③

①	✕	비난의 의도나 정보를 구하는 질문은 없다.
②	✕	과거 회상에 따라 제시 순서를 뒤집는 구성이 아니다.
③	○	**‘하늘이여’의 부름과 ‘아’ 및 감탄의 종결이 함께 나타난다.**
④	✕	하늘의 말이 없으며 감정이 강하게 표출된다.

다시 볼 설명 **E06**, **E07**, **E10** 요약집 시06-05 · 시06-06

19 정답 ②

①	✕	작품 속 말하는 존재를 실제 작가와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②	○	**혼자 있지만 친구를 부르고 친구의 행복을 바라는 말을 직접 건넨다.**
③	✕	물리적으로 혼자인 것과 작품에서 청자를 설정하는 것은 다르다.
④	✕	웃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친구의 실제 반응이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08**, **E09** 요약집 시06-08 · 시06-09

함께 볼 개념 01편의 화자·청자와 연결한다.

20 정답 ②

①	✕	청자는 부름·명령·청유 등으로도 설정된다.
②	○	**‘친구야’라는 부름과 ‘찾아가렴’이라는 요청이 직접 말을 건네는 근거이다.**
③	✕	실제 응답이 없어도 상대를 설정하여 말할 수 있다.
④	✕	친구의 물건을 말한 것이며 친구의 응답이 제시되었다는 근거는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08**, **E09** 요약집 시06-08 · 시06-09

21 정답 ③

①	✕	한 사람의 자문자답이다.
②	✕	말을 건네지만 상대의 응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	**나의 질문과 동생의 응답이 연결되어 두 목소리가 말을 주고받는다.**
④	✕	두 사람이 등장하지만 말을 주고받지는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5**, **E09** 요약집 시06-04 · 시06-09

22 정답 (가) 1명, (나) 2명

판단 근거 (가)는 한 사람이 묻고 답한다. (나)는 나와 형이 각각 질문과 답을 말한다.

인정 답안 (가) 1·(나) 2를 모두 맞게 쓴 답. 질문·답의 개수인 2·2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5**, **E09** 요약집 시06-04 · 시06-09

23 정답 ①

①	○	**한 화자가 자기에게 묻고 스스로 답하므로 두 인물이 아니다.**
②	✕	마지막 행에서 두려운 대상인 자신의 마음을 밝힌다.
③	✕	두려운 마음의 원인을 스스로 묻고 답한다.
④	✕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고 속으로 말한다는 상황이 제시된다.

다시 볼 설명 **E05**, **E08**, **E09** 요약집 시06-04 · 시06-07 · 시06-09

24 정답 ②

①	✕	부름과 생각을 강조하는 물음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함께 성립한다.
②	○	**‘나무여’는 돈호, 첫 행의 감탄은 영탄, 둘째 행은 고마움을 간직해야 함을 강조하는 설의이다.**
③	✕	나무의 응답은 없다.
④	✕	겉말과 반대되는 불평이나 비난의 문맥이 없다.

다시 볼 설명 **E04**, **E06**, **E07**, **E10** 요약집 시06-03 · 시06-05 · 시06-06 · 시06-08

25 정답 ④

①	✕	구조는 대응하지만 닫힌/열린, 밀고/당긴다는 상태와 행동의 차이도 드러난다.
②	✕	소리의 변화나 문이 말로 대답하는 장면은 없다.
③	✕	나는/너는 + 어떤 문을 + 어찌한다는 성분과 배열이 비슷하다.
④	○	**누가+어떤 문을+어찌한다는 구조가 대응하고, 닫힘·열림과 밀기·당기기의 차이가 맞세워진다.**

다시 볼 설명 **E11** 요약집 시07-01 · 시07-02

26 정답 ③

①	✕	겉과 속의 차이를 맞세워 대조한다.
②	✕	거리와 밝기의 차이를 함께 맞세운다.
③	○	**누가+무엇을+심는다는 구조가 나란히 대응한다. 씨앗과 모종은 다르지만 이 문장에서는 반대 성격이나 행동을 맞세우지 않는다.**
④	✕	떠남과 남음이라는 서로 다른 행동을 맞세운다.

다시 볼 설명 **E11** 요약집 시07-02 · 시07-01

27 정답 ①

①	○	**‘가득 찬 창고’와 ‘빈 그릇’의 차이가 같은 장면에 놓여 부각된다.**
②	✕	대조는 의미 관계이며 이처럼 한 문장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
③	✕	빈 그릇의 뜻을 반대로 읽을 근거가 없다.
④	✕	두 대상이 제시될 뿐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1** 요약집 시07-01

28 정답 ③

①	✕	통사 구조의 반복은 떨어진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	사이에 다른 장면이 제시되므로 나란히 배치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③	○	**먼지와 두려움으로 내용이 달라도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짜임이 다시 나타난다.**
④	✕	골목의 먼지와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낱말이 다르다.

다시 볼 설명 **E12** 요약집 시07-12 · 시07-02

29 정답 ①

①	○	**판매하는 물건의 열거이며 의미가 단계적으로 커지는 순서는 제시되지 않는다.**
②	✕	‘와’로 연결해도 여러 항목을 나열할 수 있다.
③	✕	소재의 종류가 표현 기법의 성립을 막지 않는다.
④	✕	관련된 항목 여러 개를 나열하므로 열거가 성립한다.

다시 볼 설명 **E13** 요약집 시07-03 · 시07-05

30 정답 ②

①	✕	문맥은 약화가 아니라 소리가 퍼지는 범위의 확대를 보여 준다.
②	○	**교실에서 운동장, 마을 전체로 소리의 도달 범위가 커진다.**
③	✕	외침의 내용과 화자의 정서는 제시되지 않아 기쁨을 단정할 수 없다.
④	✕	장소의 수가 아니라 제시된 공간 범위의 확대가 근거이다.

다시 볼 설명 **E13, E15** 요약집 시07-05

31 정답 ②

①	✕	소리의 강도 변화는 제시되지 않는다.
②	○	**행 앞의 '다시'가 반복되어 이어지는 행동과 리듬을 드러낸다.**
③	✕	행동의 반복을 제시하며 전체 상황의 완결을 단정하지 않는다.
④	✕	'다시'는 각 행 앞에 반복될 뿐 앞 행의 끝말을 이어받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4** 요약집 시07-04 · 시07-07

32 정답 ②

①	✕	이 반복도 보이지만 연쇄의 핵심은 앞 끝말과 다음 첫말의 연결이다.
②	○	**앞 구절 끝의 중심 말이 다음 구절의 주어로 이어지며 반복된다.**
③	✕	음절 수의 동일성은 연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④	✕	인물들이 실제로 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아니라 의미가 이어지는 표현이다.

다시 볼 설명 **E14** 요약집 시07-07 · 시07-04

33 정답 ①

①	○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만 앞 구절 끝말을 다음 구절 처음에서 이어받는 배열은 아니다.**
②	✕	앞의 '빛을'이 뒤의 '빛이'로 이어진다.
③	✕	앞의 '흙'이 다음 구절 처음의 '흙'으로 이어진다.
④	✕	앞의 '다리'가 다음 구절 처음에서 반복된다.

다시 볼 설명 **E14** 요약집 시07-04 · 시07-07

34 정답 ②

①	✕	마지막 문장은 소리가 잦아든 결과의 분위기를 더할 뿐 점강을 취소하지 않는다.
②	○	**소리의 약화와 아이의 편안한 잠이 함께 제시되므로 부정적 정서로만 읽지 않는다.**
③	✕	아이의 편안한 잠이 제시되어 절망으로 읽을 근거가 없다.
④	✕	강도의 변화와 시간의 진행 방향은 다른 기준이다.

다시 볼 설명 **E15** 요약집 시07-06

35 정답 ②

①	✕	장소 이동만으로 강도나 범위의 감소를 판단할 수 없다.
②	○	**아침·낮·저녁의 시간 순서를 의미 강도의 증가와 동일시할 수 없다.**
③	✕	시간 순서는 시상 전개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④	✕	귀가를 말할 뿐 앞의 일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5** 요약집 시07-05 · 시07-06

함께 볼 개념 03편의 순행적 흐름과 연결한다.

36 정답 ③

①	✕	회상이나 시간 역행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두 변화의 방향을 모두 반대로 설명했다.
③	○	**천천히 걷기→걸음 재촉→온 힘을 다해 달리기는 점층이고, 큰 그림자→작은 그림자→점 하나는 점강이다.**
④	✕	글자 수로 판단하지 않으며 (나)는 크기가 작아지는 점강이다.

다시 볼 설명 **E15** 요약집 시07-05 · 시07-06

37 정답 ②

①	✕	일반적인 어순으로 바꾸어도 피어나는 주체는 꽃이다.
②	○	**주어가 서술어 뒤로 옮겨졌지만 꽃이 피어난다는 뜻과 주체는 그대로이다.**
③	✕	'다시'는 재차 피어났음을 나타내며 부정의 뜻이 아니다.
④	✕	말의 순서를 바꾼 것과 사건의 시간 순서를 거꾸로 구성하는 것은 다르다.

다시 볼 설명 **E16** 요약집 시07-08

38 정답 텅 빈 의자를

판단 근거 일반적인 어순은 '우리는 텅 빈 의자를 오래 바라보았다'이다. '텅 빈 의자를'이 서술어 뒤에 놓였다.

인정 답안 '텅 빈 의자를'. 목적격 조사 '를'을 포함하고 목적어 전체를 써야 한다. '의자를'만 쓴 답은 전체 구절을 빠뜨렸다.

다시 볼 설명 **E16** 요약집 시07-08

39 정답 ④

①	✕	달리고 돌아와 목이 마른 상황이며 반대 속뜻을 나타낸다는 근거는 없다.
②	✕	실측한 물의 양이 아니라 목마름의 정도를 크게 부풀린 표현이다.
③	✕	목마르면서 목마르지 않다는 모순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	**강물 한 줄기를 다 마실 듯하다는 과장으로 심한 갈증을 강조한다.**

다시 볼 설명 **E17** 요약집 시07-09

40 정답 ①

①	○	**비현실적 사건의 설정만으로 수사적 과장을 확정하지 말고, 정도를 부풀리는 표현 기능과 문맥을 함께 본다.**
②	✕	비현실성과 겉말·속뜻의 반대는 다른 기준이다. (나)에 반대 의도를 읽을 근거가 없다.
③	✕	일상적인 말에도 과장이 쓰이며, 이야기라는 이유만으로 모순을 담은 역설이 되지는 않는다.
④	✕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설정과 수사적 과장을 같은 기준으로 확정했다.

다시 볼 설명 **E17** 요약집 시07-09

41 정답 ②

①	✕	'아름답게'는 4음절, '아름다웁게'는 5음절로 오히려 늘어난다. 빛이 머물기를 바라는 문맥이다.
②	○	**늘어난 소리와 호흡이 떠나지 말고 머물라는 바람과 이어지는 시적 허용이다. 시인의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	형태가 달라져도 아름답다는 뜻을 반대로 뒤집는 것은 아니다.
④	✕	시적 허용이 일반적인 언어 규범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8** 요약집 시07-10

42 정답 ④

①	✕	뜻한 글자를 잘못 적은 일상 글의 오타이며, 시적 효과를 살리는 표현이 아니다.
②	✕	시의 문장이어도 규범에서 벗어난 형태가 없으므로 시적 허용의 예가 아니다.
③	✕	말의 순서를 바꾼 도치의 예이다. 한국어에서 가능한 어순 변화만으로 시적 허용이라 하지 않는다.
④	○	**‘하얀’을 ‘하아얀’으로 늘인 형태가 길게 이어지는 눈길의 느낌과 연결되어 시적 허용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볼 설명 **E18** 요약집 시07-10

43 정답 ③

①	✕	둘째 행에서 문장이 끝나더라도 첫 행의 구조는 미완성일 수 있다.
②	✕	행의 수가 아니라 구문·의미가 다음 행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③	○	**첫 행에서 끝나지 않은 꾸미는 관계가 행 경계를 넘어 연결된다.**
④	✕	같은 화자의 한 문장이 이어질 뿐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9** 요약집 시07-11

44 정답 ④

①	✕	행갈이는 앞의 뜻을 부정하지 않으며 목적어를 이어 제시한다.
②	✕	부르겠다는 뜻만으로 만남의 성취나 기쁨의 절정을 단정할 수 없다.
③	✕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겠다는 말이다.
④	○	**도치와 행간 걸침이 함께 나타나며 뒤에 놓인 대상을 부각한다.**

다시 볼 설명 **E16**, **E19**, **E20** 요약집 시07-08 · 시07-11

45 정답 ④

①	✕	문의 물리적 크기 변화는 제시되지 않는다.
②	✕	문이 실제로 말한 장면은 없다.
③	✕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에게는 문이 닫힌다.
④	○	**2~3행의 차별과 잠긴 문이라는 상황에서 너그럽다는 말은 실제 평가와 반대인 반어이다.**

다시 볼 설명 **E01**, **E03** 요약집 시06-01

46 정답 ④

①	✕	구조는 비슷하지만 문을 열고 닫는 대우가 반대이다.
②	✕	아이들에 대한 행동이 제시될 뿐 두 아이의 말은 없다.
③	✕	낱말의 차이가 있어도 문장 성분과 배열은 비슷하다.
④	○	**어떤 운동화를 신은 아이에게는 문을 어찌한다는 구조가 대응하고 대우의 차이가 맞세워진다.**

다시 볼 설명 **E11**, **E12** 요약집 시07-01 · 시07-02 · 시07-12

47 정답 ②

①	✕	1행의 안내와 2~3행의 행동이 어긋난다.
②	○	**상황을 고려하면 '너그러운'은 차별을 비판하는 반어이다. 겉말만으로 긍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	'누구에게나'가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
④	✕	대구와 대조가 결합해 차이를 부각한다.

다시 볼 설명 **E01**, **E11**, **E20** 요약집 시06-01 · 시07-01 · 시07-02

48 정답 5행

판단 근거 '어찌 나의 기다림만 길었다고 말하겠니'는 친구가 보낸 힘든 시간도 헤아려야 한다는 생각을 의문 형식으로 강조한다.

인정 답안 5 또는 5행. 안부를 묻는다고 서술한 6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4** 요약집 시06-03

49 정답 ④

①	✕	청자의 설정에는 실제 응답이 필수적이지 않다.
②	✕	행마다 두 사람이 번갈아 말하는 구성이 아니다.
③	✕	사진의 의미를 말에 빗대었을 뿐 친구가 직접 말한 문장은 없다.
④	○	**친구를 부르고 말을 향하게 하지만 친구의 질문이나 응답은 제시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8**, **E09** 요약집 시06-08 · 시06-09

50 정답 ②

①	✕	사진 속 문장을 읽었다는 내용은 없으며 화자는 사진에서 친구의 하루를 헤아린다.
②	○	**친구의 막막한 하루를 사진에서 읽었다는 문맥이 역설적 표현을 풀어 준다.**
③	✕	화자는 친구의 사정을 헤아리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반대 속뜻이 아니다.
④	✕	화자는 친구의 막막함을 이해한 뒤 재촉하던 말을 지우고 안부를 묻는다.

다시 볼 설명 **E02, E03, E20** 요약집 시06-02

51 정답 ③

①	✕	불빛·창·골목으로 주체가 이어지며 대상도 달라진다.
②	✕	같은 위치에 놓인 '깨운'의 반복만으로는 연쇄를 설명하지 못하며 끝→처음의 연결을 보아야 한다.
③	○	**창→창이, 골목→골목이의 연결이 중심 말을 이어받는 반복이다.**
④	✕	2행의 연쇄 근거와 무관하며 처음·끝의 문장도 같지 않다.

다시 볼 설명 **E14** 요약집 시07-07 · 시07-04

52 정답 ②

①	✕	과거·현재의 시간 변화는 제시되지 않는다.
②	○	**한 집→한 거리→온 마을로 범위가 커지는 점층이 서로의 안부와 연결된다.**
③	✕	소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안부가 오가는 공간 범위를 확대한다.
④	✕	한 집·한 거리·온 마을의 범위 차이가 직접 드러난다.

다시 볼 설명 **E13, E15, E20** 요약집 시07-03 · 시07-05

53 정답 ①

①	○	**함께 안부를 나누고 밤을 밝히는 상황만으로 모든 갈등의 영구적 해결을 단정할 수 없다.**
②	✕	손끝에서 창·골목·마을로 이어지는 표현이 제시된다.
③	✕	범위의 확대와 서로 안부를 나누는 내용이 연결된다.
④	✕	연쇄의 형식이 연결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다시 볼 설명 **E14, E15, E20** 요약집 시07-05 · 시07-07

54 정답 ③

①	✕	듣는 주체는 '나'이다. 서술어 뒤에 놓인 목적어의 위치가 역할을 뒤바꾸지 않는다.
②	✕	한 화자가 들은 일을 서술한 한 문장이며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다.
③	○	**도치된 목적어를 행 경계를 넘어 제시하므로 도치와 행간 걸침이 함께 나타난다.**
④	✕	'새어 나온'은 다음 행의 '너의 목소리'를 꾸미므로 첫 행에서 짜임이 끝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6**, **E19** 요약집 시07-08 · 시07-11

55 정답 ①

①	○	**외침→말소리→속삭임은 강도 감소이고, 대답이 티끌만 해졌다는 말은 작음을 과장한다.**
②	✕	목소리의 약화에서 화자의 청력 상실을 추론할 수 없다.
③	✕	물리적 실측이 아니라 소리의 작음을 표현한다.
④	✕	제시된 것은 상대 목소리의 약화이며 화자의 분노 고조가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5**, **E17** 요약집 시07-06 · 시07-09

56 정답 ②

①	✕	소리의 크기를 과장한 것과 말한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별개이다.
②	○	**놓치지 않으려 몸을 기울이는 행동이 앞의 소리 약화와 연결된다.**
③	✕	듣는 행동만으로 오해가 해결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
④	✕	몸을 더 기울이는 행동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행동이다.

다시 볼 설명 **E17**, **E20** 요약집 시07-09

57 정답 ①

①	○	**1·8행은 어머니에게 말을 향하고, 2행은 자기반성, 나머지 행동은 먼저 일하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②	✕	어머니는 말을 건네는 상대이며 화자는 자신의 행동과 반성을 말한다.
③	✕	제 무심함을 돌아본다고 하여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다.
④	✕	어머니의 말은 제시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8**, **E09** 요약집 시06-08 · 시06-09

함께 볼 개념 01편의 화자·청자, 반성·의지와 연결한다.

58 정답 ①

①	○	**‘달그락’은 의성어이고, ‘아 … 감싸는구나’는 촉각 경험과 감탄의 표현이다.**
②	×	감탄사 ‘아’와 감탄형 어미 ‘-는구나’가 함께 제시된다.
③	×	그릇과 숟가락이 닿는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④	×	청각과 촉각이 나란히 제시되는 것과 감각의 전이는 구별해야 한다.

다시 볼 설명 **E06** 요약집 시06-05

함께 볼 개념 02편의 청각·촉각과 복합 감각, 03편의 의성어와 연결한다.

59 정답 ③

①	×	자기반성은 먼저 돕는 태도와 이어지며 처음의 뜻을 취소하지 않는다.
②	×	표현의 대응은 확인되지만 계절이나 하루의 순환은 제시되지 않는다.
③	○	**1·8행의 유사한 표현이 대응하고 중간의 반성·설거지 다짐이 그 의미를 구체화한다.**
④	×	불을 켜고 그릇을 닦으려는 내용과 앞치마를 두르는 행동이 연결된다.

다시 볼 설명 **E12**, **E20** 요약집 시07-12

함께 볼 개념 03편의 수미상관·수미상응과 시상 전개를 함께 적용한다.

60 정답 ①

①	○	**어머니의 수고를 돌아보는 문맥에서 저절로 차려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강조하는 설의이다.**
②	×	서술어 ‘닦겠습니다’ 뒤에 목적어 ‘식탁 위에 남겨 둔 그릇들을’이 이어진다.
③	×	‘남겨 둔’과 ‘그릇들’의 꾸미는 관계가 행 경계를 넘어 이어진다.
④	×	저절로 차려지지 않았다는 물음이 어머니의 노고를 인정하는 뜻과 이어진다.

다시 볼 설명 **E04**, **E16**, **E19**, **E20** 요약집 시06-03 · 시07-08 · 시07-11